

**포교열전,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조계종 포교사단 엮음/모과나무 펴냄/1만 2천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41명 포교사들의 삶과 수행, 전법 이야기를 엮어 〈포교열전-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를 펴냈다. 포교사는 '포교는 수행이요, 수행이 포교이다' 라는 사명을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포교와 전법의 현장에서 겪는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유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또한 포교사들은 이러한 포교활동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얻었다. 자신들이 얻은 기쁨과 행복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희망을 준다. 개인들이 일상생활서 겪는 어려움과 번뇌를 핑계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스스로의 기쁨과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무언의 가르침을 전한다.

김주일 기자

# "죽으려고 들어간 선방이 오히려 나를 살렸다"



선원일기

지범 스님 지음/사유수 펴냄/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기 2554년 경인년 대승사 동안거 기념촬영 모습. 사진 맨 앞줄 오른쪽서 두번째가 저자인 지범 스님.

**40년 제방의 선원 풍경 가감없이 한권에 담아**
**저자가 만난 한국불교 대표 60人 선지식 인연담도**
**"중생 위한 자비심 없으면 수행도 한낱 헛된 행위"**

"한국불교가 침체되고 미래가 밝지 않다고 하지만 화두 하나에 천착해 치열한 구도열정을 펼치는 수행자들도 많습니다. 이 분들의 치열한 구도역정을 목격하면 아마도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딱 그칠 것입니다. 참 수행자들이 전국 제방선원에 많아요. 40년 선방(禪房)을 돌아다니면서 만난 수행자들의 숨소리까지 고스란히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진 스님을 은사로 1979년 범어사서 입산해 출가 이후 1980년 전북 부안 월명암 동안거를 시작으로 봉암사 태고선원, 하동 쌍계사, 구산선문 동리산 태안사 선원, 해인사 선열당 선원, 설악산 백담사, 화엄사 선등선원 등 전국 이름난 선원에 두루 방부를 들인 지범 스님〈사진 위〉.

이번에 펴낸 〈선원일기〉는 입산 출가부터 현재까지 40여년 간 수좌 지범 스님(상도동 보문사 주지)이 제방선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수행담과 인연 있는 선승들이 몸을 던져 좌복서 치열히 정진한 삶의 현장을 오롯히 기록한 책이다. 저자 지범 스님은 전국 선원과 처처에서 신심과 원력으로 묵묵히 정진하는 수좌들의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이 땅에 다시 간화선이 꽃피고 혼탁한 세상의 빛이 되기를 기원한다.

지범 스님은 "돌이켜보면 나의 20대 때 공부는 신심과 열정은 있었어도 자세하고 섬세하지 못해 늘 들뜨고 자리를 못 잡았다. 방황도 많이 했고, 객기도 부리면서 때론 손가락질도 받았다"며 "부산서 과로로 쓰러진 후 고운사 100일 용맹정진서 공부의 기틀을 잡았고, 대자암 무문관과 진귀암 무문관서 낮에는 좌복서 애를 쓰고 밤에는 전강 노사의 법문을 들으면서 화두를 점검하는 수좌로서 호시절 이었다"고 회고했다.

지범 스님은 출가 이후 모친의 당부를 항상 가슴에 새기며 수좌로서 정진했다. 모친은 "꼭 서산대사 같은 선지식이 돼 달라"고 지범 스님의 손을 잡으며 신신당부했다.

깨달음을 위해 쓰러지고 넘어질때마다 좌복서 승부를 걸면서 몸을 던진 지범 스님은 1993년 여름 일생일대의 승부수를 던진다. "계룡산 대자암 무문관이 개원됐다고 제방에 알려지니 가슴이 뛰고 꼭 살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벌써 선원에 나온지 15년이 넘었고, 세속 나이도 40세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살다가는 공부 시늉만 하고 죽는 것이 아닌가 급한 생각이 들었다. 역대 조사들은 20대에 일찍이 이 일을 마쳤는데 나는 이게 무슨 꼴인가 하는 자책이 들어 괴로웠다"고 당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던 처절한 심경을 책 속에서 고백한다.

지범 스님은 대자암 무문관서 '이번에 끝내지 않으면 이 무문관서 죽으리라' 고 굳게 다짐한 뒤 입실한다. 밤늦게 고향의 아버지 묘소에 가서 이별을 고했고, 어머니 집 앞에서 삼배로 인사 드릴 정도로 그 어느때보다 각오가 남달랐다.

지범 스님은 책 속에서 당시의 무문관 생활을 이렇게 묘사한다. "먼저 면도기로 눈썹을 밀고 좌복에 앉아 화두와 씨름했다. 그러나 생각같이 공부가 순일하지 못하고 혼침과 망상으로 두 달 가량을 애태우면서 보냈다. 엉덩이가 헐고 헐어 진물이 나고 진물과 피가 좌복에 붙어 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코피가 멈추는 날이 없었고, 이러다간 못 견딜 것 같아 가끔씩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길고 긴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한다.

몸이 쇠약해지고 지쳐 포기하고 옆으로 누웠을 때 그 문틈 사이로 짐을 나르는 개미들을 우연히 보면서 지범 스님은 깨닫는다.

"개미들이 떨어지기를 반복하다가 기어코 석양 늦게 짐 옮기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요. 세상 미물들도 이렇게 해내는데 장부가 여기서 포기할 수 있나하며 다시 화두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공부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으나, 중생을 위한 자비심이 크게 부족했음을 느끼고 이 날부터 매일 천배씩 하면서 화두를 들었지요. 희한하게도 그때부터 화두가 들리기 시작했고, 좌복에 앉아도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화두에 힘이 붙어 몇시간을 금방 보내니 환희심이 절로 났지요."

그해 추석날 아침, 문없는 문이 열리고 죽으러 간 무문관이 오히려 지범 스님을 살린 것이다. 스님은 책 속에서 대자암 무문관의 기적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한다.

책은 크게 4부로 나눠져 있다. 제 1부 〈선원의 추억〉은 40년 수좌가 출가 초기 정진한 추억의 선원서부터 최근 수행한 선원에 대한 솔직하면서도 담백한 기록이다. 백련사 각화사 월명암 쌍계사 칠불사 동화사 태안사 봉암사 해인사 망월암 대자암 진귀암 고운사 대흥사 등 이 땅의 대표적인 선원의 풍경과 그 곳에서 수행하는 수좌들의 치열하면서도 때로는 낭만적인 모습을 담았다.

제 2부 〈선방생활〉에서는 출가 인연과 속가 인연을 간단하게 밝히고, 선원에서 해제와 결재를 맞는 다짐, 용상방을 짜고 죽비를 내리는 결제해제 모습 등 선원의 일상을 담았다. 나아가 지대방, 객실, 대중공양, 해제비, 객스님, 토굴 등 선객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짚어보고 현재 수행문화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화두로 던진다.

제 3부 〈선원을 지켜온 수좌들〉은 저자가 제방선원에서 정진하면서 만난 올곧은 수행자들에 대한 정직한 기록이다. 서옹스님 서암스님 성철스님 월하스님 무여스님 고산스님 오현스님 적명스님 능엄스님 명정스님 통광스님 봉철스님 월용스님 인각스님 무문스님 법연스님 종안스님 고우스님 보선스님 등 평생 수행과 중생제도를 해온 현대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지식들과의 인연담과 덕화를 기록했다.

제 4부 〈선원은 살아 있다〉는 한국불교의 위기와 출가자의 수행풍토에 대한 우려가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있는 요즘 전국 선원과 도처에서 묵묵히 정진과 포교에 힘쓰는 수좌들을 소개한다. 특히 화가 강행복, 황남채의 작품을 표지와 본문에 실어 선원의 정취와 선객의 기개를 잘 드러낸다.

## 책속의 밑줄 긋기

▲그 해 여름은 무척 덥고 뜨거웠다. 하지만 몸에서는 늘 시원한 바람이 불고 화두가 순일하여 앉아 있는 것이 가볍고 시간가는 줄 몰랐다. 대중의 정진 열기가 뜨거웠기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거칠고 도전적이던 성정도 많이 부드러워 졌다. 칠불선원은 나를 사람으로 만들고 수행자로서 거듭나게 했다.

▲이번에 끝내지 않으면 무문관서 죽으리라 수없이 다짐하면서 밤늦게 고향의 아버님 묘소에 가서 이별을 고하고 어머님 집 앞에서 삼배로 인사드렸다. 대자암으로 들어가는 길, 봄날의 꽃들도 나무들도 모두 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무문관 문이 닫히고 드디어 결재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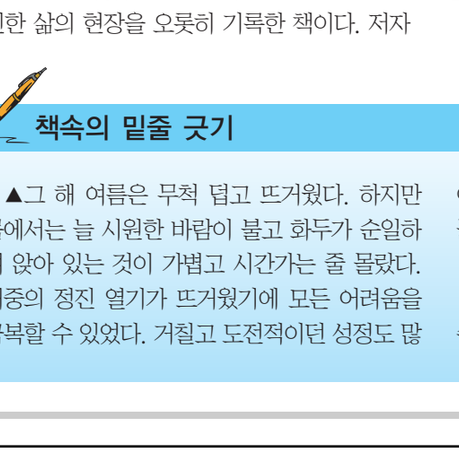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는 으레 좌복서 승부를 걸면서 몸을 던졌다. 그 때는 간절했기 때문에 화두가 들렸고, 간절했기 때문에 하심이 되고 불보살의 가피가 있지 않았나 싶다. 이 공부는 간절해야 하고 하심하지 않으면 이어갈 수 없다.

▲선방에서 무슨 공부를 하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화두다. 화두는 쓰러져가는 나를 살렸고, 방황하는 나를 살렸고, 죽고 싶은 나를 살렸기 때문이다. 그 화두가 필경에는 생사가 없는 부처님을 출현시킨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사주 명리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사주공부의 바르고 가장 빠른길!

맹파명리!

《맹파명리》 책에 수록되어 있는 빈주(賓主), 체용(體用), 형(形)과 기(氣), 주공(做功), 간지허실(干支虛實), 상법(象法), 지지의 천(穿), 파(破), 정국(正局) · 반국(反局) 등을 통하여 기존 전통명리와는 다른 맹파명리의 촌철살인의 판단방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독자들은 《맹파명리》를 통하여 그동안 잃어버렸던 명리학에 대한 경외심과 신심을 회복할 것이다.



명불허전, 최고 절정의 맹파명리

사주 명리계에 있어서 중국 본토를 완전지배한 맹파명리! 한국 상륙!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지식인의 최고찬사 맹파명리.
새로운 개념, 새로운 논리로 길흉을 정확히 해석해 내는 맹파명리!

맹파명리를 통하여 명리(사주)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했다는 한결같은 찬사!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5시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8시 (저자 직강)
맹파입문반, 혼인반, 재관반, 직업반, 간지상법반,
음양풍수반 순환주기로 강의
강의장소 : 1호선 종로3가 2번 출구 바로 앞
유니클로 옷가게 좌측 영흥빌딩 502호
강의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

Daum 카페 : "맹파명리" 검색

직접 택배로 받아 보실분은 주소, 성명,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송금 바람.
구입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입금계자 : 국민은행 638702-01-372376 (예금주 : 박형규)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